



## 신경림 시인

동국대 석좌교수

# 詩 사랑은 '하나 더 갖게 된 행복'

떠도는 자의 노래

외진 별정우체국에 무엇인가를 놓고 온 것 같다  
어느 삭막한 간이역에 누군가를 버리고 온 것 같다  
그래서 나는 문득 일어나 기차를 타고 가서는  
눈이 펄펄 쏟아지는 좁은 골목을 서성이고  
쓰레기들이 지저분하게 널린 저갓거리도 기웃댄다  
놓고 온 것을 찾겠다고

아니, 이미 이 세상에 오기 전 저 세상 끝에  
무엇인가를 나는 놓고 왔는지도 모른다  
쓸쓸한 나룻가에 누군가를 버리고 왔는지도 모른다  
저 세상에 가서도 다시 이 세상에  
버리고 간 것을 찾겠다고 해매고 다닐는지도 모른다

— 현대불교 독자에게 시인이 권하는 글 —

### 외손자 위해 동화 쓰고파

시인 신경림(67).

철손을 바라보는 시인의 요즘 가장 큰 관심사는 8살 된 외손자의 일상이다. 손자가 자전거를 탈 때는 축구공을 지키고, 축구를 할 때는 자전거를 지키는 완벽한(우리에 '할아버지'다. 월드컵 이후 "도깨비 얘기해 줄까?" 하면 "도깨비가 축구한 얘기 해 주세요"라고 할 만큼 머리 속이 온통 축구 생각뿐인, 그래서 '책 읽는 게 제일 싫다'는 외손자를 위해 시인은 동화를 쓰고 싶다고 한다. "생각은 많은데 게을러서 잘 안 써진다"고는 하지만, 그는 내심 특별한 생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.

매년 8월이면 열리는 만해시인학교의 교장인 시인은 올해 그 일과 무관하게 백담사를 찾았다. 지난해 발표한 시 '특급열차를 타고 기다다'에서 평범한 시어로 불교적 직관을 펼쳐냈다는 평가를 받아, 만해상 시문학 부문의 수상자가 됐기 때문이다. 그러나 '불교시인'이라는 일부의 평에 대해서는 '부처님 가르침을 지극히 따르려는 시인일 뿐'이라는 말로 그 의미를 풀이한다.

"제 시가 특별히 불교적 가르침을 표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. 다만, 우리 문

화의 저변에는 불교적인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,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작품에 불교적인 요소들이 담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."

"이렇게 서둘러 달려갈 일이 무언가/ 한 한 봄 햇살 꽃그늘 속의 설렘도 보지 못하고/ 날아가듯 달려가 내가 할 일이 무언가/ 예순에 더 못해를 보아온 같은 풍경과 말들/ 종착역에서도 그것들이 기다리겠지'(특급열차를 타고 가다가)

### 불교계 게으름 안타까워

"불교야말로 21세기에 가장 앞맞은 종교 아닙니까. 환경이나 생명 등 모든 문제에 대해 답을 줄 수 있는 종교가 불교거든요. 이런 불교적인 가르침을 문화와 비롯한 예술 작품으로 표현한다면 더욱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가 이런 면에서 뒤처지는 것은 불교계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펼쳐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, 그게 아직 부족해요. 일상의 삶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어야 불교가 '낡은 종교'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?"  
동국대학교 석좌교수이기도 한 시인은

이번 학기에 학부생을 대상으로 '시 창작론'을 강의하고 있다.

"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. 시에 대한 열정과 희망도 발견할 수 있지요. 하지만 요즘 젊은 문인들이 하듯 억지로 시를 만들지는 말아야 합니다."

최근 펴낸 시집 《꽃》에 실린 '시인이란 무엇인가'라는 산문이 생각나는 구절이다. 시인은 이 글에서 시인들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을 중언부언하는 '자폐적인 글쓰기'가 요즘의 시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라고 진단했다.

"시도 다른 말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대화입니다. 단 몇 마디로 힘 있고 분명하고 감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대화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를 쓰고 읽으면 자폐증은 어느 정도 풀리지겠지요."

또한 시란 그 시대의 요구에 대한 대답이어야 한다고 믿는 시인은, 다양성의 시대에 시가 대답해야 할 부분이 더욱 넓어졌으며, 그만큼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한다.

### 詩도 대화... 감동적이어야

"결국 시가 시대의 삶에 깊이 뿌리박는 것, 그 이상의 대답을 있을 수 없겠지요"

시인이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택한 것은 시인의 시세계를 찾아 나선 일이다. 최근 펴낸 <시인을 찾아서> 2권에서는 현재 활동 중인 고은, 김지하 등 스물세 명 시인의 시세계를 탐색하며, 시를 재미있게 읽는 방법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한다.

"시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못 가진 재미를 하나 더 가지고, 다른 사람이 못 가진 행복을 하나 더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."

이제 시인은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시를 쓴다. 자신이 심은 나무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, 보고도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, 나무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, 아는 사람에게는 큰 기쁨을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글을 쓴다는 것이다. 이것은 또한 그에게 있어 '시 쓰는 즐거움'이기도 할 것이다.

글= 여수명 기자 snopy@buddhanews.com  
사진= 임민수 기자 ymns00@buddhanews.com

## 56년 '낮달' '갈대'로 등단

### 첫시집 '농무' 서민의 아픔 노래

신경림 시인은 1956년 '문학예술'에서 '낮달'과 '갈대' 등이 추천돼 등단했다. 그러나 전쟁 직후 폭격으로 허물어진 집과 사람들 사이에서 '시 쓰는 일'에 회의를 느낀 시인은 10여 년 간 시골을 떠돌았다. 공장장과 장터를 전전하며 만난 사람들의 삶을 아파했던 시인은 '편약 다시 글 쓸 기회가 온다면 이런 사람들의 정서, 설움 같은 것을 외면하지 않겠다' 다짐했고, 그래서 쓴 시가 '파장'과 '농무' 같은 시였다.

'뭇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/ 이밭소 앞에 서서 잡외를 꺾고 / 쪽로에 앉아 막걸리를 들이키면 / 모두들 한결같이 친구 같은 얼굴들'(파장)

이후 유신과 독재에 맞서는 무기로서의 시와,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시 사이의 갈등으로 80년대 불 지냈으며, 도시 외곽지대 빈민들의 삶을 노래한 '가난한 사랑노래' 같은 서정미 넘치는 시를 쓰기도 했다. 이제 작가 생활 40년을 넘긴 시인의 시를 사람들은 '박박함', '포용', '여백' 등으로 읽어내고 있다.

시집으로는 <농무>(1973) <새재>(79) <달남세>(85), <남한강>(87), <가난한 사랑 노래>(88), <길>(90), <쓰러진 자의 꿈>(93), <어머니와 할머니의 삶무엇>(98), <꽃>(2002)이 있다.

# 마곡사 병진스님 소장 朝鮮 佛畫 草本 특별전

Special Exhibition Joseon Dynasty Underdrawing of Buddhist Painting

### 모시는 글

동국대학교 박물관은 가을을 맞이하여 병진스님 소장 조선불화초본 특별전을 개최합니다. 조선 후기에서 근현대에 이르는 시기의 새롭고 다양한 불화초본의 세계로 초대합니다.

동국대학교 박물관장 장충식 올림  
장안사 주지스님 황병진 합장

### ■개막

2002년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

### ■전시기간

2002년 9월 24일 (화)  
~ 2002년 10월 12일(토) 일요일은 휴관

### ■전시장소

동국대학교 박물관 제2전시실

### ■문의

동국대학교 박물관  
Tel : 02-2260-3462  
Fax : 02--226-8783

